

부활의 再吟味

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돌도 없는 기쁜 소식이며, 구원의 진수이다.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 밝은 광명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환희에 넘치는 일일까? 온갖 고초와 신음의 저쪽에 이러한 새 삶의 빛의 세계가 있다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인간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. 지금까지 부활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환희와 영광의 부활을 말했으나 진정한 죽음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다. 죽음을 모르고서 어찌 부활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겠는가? 죽음은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다. 인간은 이 죽음의 신비를 풀지 못하였다. 영광을 누리던 저 강대국들은 시간의 역사 앞에서 굴복하였고,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인물들도 이 죽음이라는 신비 속에 삼켜지고 말았다. 정말로 죽음의 뜻이 무엇일까? 그것은 또 삶의 신비에서만 해답이 나온다. 삶, 죽음, 그리고 부활, 이 세 가지의 총체적인 차원과 뜻을 파악할 때에 비로소 부활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.

부활을 말하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겠고, 죽음은 삶의 이해에서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. 진정한 죽음의 이해는 삶을 이해하는 데서, 또 그 반대로 진정한 삶의 이해는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

요즘 <새로운 것>에 대한 낱말들이 나돌고 있다. <새 가정>, <새마을>, <새로운 인간> 등등, 무엇이든지 새롭게 해 보자는 뜻일 것이다. 새 것은 낡은 것이 죽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. 그러면 낡은 것이 죽

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, 아니 무엇이 낡은 것이고, 무엇이 새 것이냐? 새 것과 낡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가치 기준이 없는 데서 무슨 새 것이 나올 것인가? 아니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이나 사회에서 무슨 새 것과 낡은 것의 가치 기준이 나올 것인가? 무던히 허풍을 떨고, 과시해 보는 생활도 해 왔지만,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가?

새로운 것이란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(化肉)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의 생애에 대하여 전적으로 <예>라고 응답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고 이러한 삶 속에서, 매일 매순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.

매순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새 것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데서도 이런 죽음을 발견할 수 있다. 한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죽는 일과 사는 일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.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신, 영혼의 현상이다. 참으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고, 또 꺼꾸로 참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죽을 줄 아는 사람이다.

이러한 죽음의 신비와 또 삶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부활의 뜻을 다시 음미하게 된다. 무덤을 헤치고 새벽 별들이 반짝이는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소생과 부활의 숨결이 율트는 곳, 거기서 썩은 살덩어리나 부스러지는 해골이 미치지 못하는 <하나님의 나라>가 지배하는 곳이다. 이곳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<아멘>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.